



2013

강릉
단오제

스탬프

Stamp Healing Tour

힐링투어를
즐기자!

5곳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스탬프 힐링 투어가 완성됩니다.



스탬프 찍는 법, 찍는 곳

- 단오문화관 관람 후 : 단오문화관 전시동 2층 단오제 위원회 사무국
- 단오굿 관람 후 : 단오제단 앞 부스
- 단오체험 후 : 단오체험존 대표 부스
- 공연 관람 후 : 제 1 안내소
- 난장 구경 후 : 제 3 안내소

스탬프 힐링 투어 운영시간

- 6월 9일 - 13:00~20:00
- 6월10일~6월15일 - 10:00~20:00
- 6월16일 - 10:00~17:00

※시간 내 Staff이 없는 경우 스탬프를 두고 가니 자유롭게 찍어 가셔도 됩니다.

스탬프 힐링 투어 운영시간

- 5곳 스탬프를 모두 찍은 분들 모두에게 강릉단오제 기념볼펜을 드립니다.
(기념볼펜은 종합안내소와 단오문화관2층 단오제위원회 사무국에 있습니다.)
- 5곳 스탬프를 모두 찍으신 분들은 완성 인증샷(얼굴이 보이게) 찍어 메일(danozzang@naver.com)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분들 중 55분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강릉단오제 기념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권 30,000원권을 드립니다.



시강릉단오제위원회
Gangneung Danoje Festival Committee



천년의 힐링로드

Gangneung Danoje Festival 2013

강릉 단오제

2013. 6. 9 (일) ▶ 16 (일)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





5년 연속 1위
국내소주부문 맛/건강만족도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처음처럼



대한민국 자연 청정구역, 대관령 기술의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처음처럼!

소주의 맛과 자존심은 처음처럼이 지켜갑니다

처음처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건강해나 간염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NH NongHyup

농산물 유통의 선도농협

강릉농협

지역 No.1 유통·금융리더 강릉농협

강릉농협 예금·대출·하나로마트·주유소



I.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II.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

III. 신용사업 1조원시대 개막

IV. 농촌사랑 운동의 내실화

V. 정도경영 및 조직의 활성화

www.nonghyup.com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NH 농협 NH농협 강릉시지부

www.gangneung-hyuplus.com

행·복·예·감
한신 休 플러스

강릉 흥제 한신 休 플러스

59/84㎡ 총 391세대
033)647-6262

한신공영(주)

강릉이 아끼는 자리!



동부가 친환경 발전소로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동부하슬라파워를 성원해 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0여 년간 강원도와 함께 해 온 향토기업 동부-
동부가 국내 최초 민간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 동부그린발전소'에 이어
강릉지역의 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동부는 국내 최대의 민간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과
향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부하슬라파워(주)



한우령 한우 전문판매장은 고품질 한우만을 약속합니다

백두대간 푸른 대자연과
동해안 청정지역속에서 키워진
‘한우령’ 한우의 깨끗하고 담백한 육질과 맛은
한우령한우 전문판매장과 전문음식점에서
‘맛’ 보실 수 있습니다.



한우령 한우 전문판매장.....

고성축협 하나로마트 거진점	682-7200
속초양양축협 속초점	631-8868
속초양양축협 하나로마트 남문점	671-8868
강릉축산농협 하나로마트 내곡점	655-9995
동해삼척태백축협 하나로마트 남양점	573-5610
동해삼척태백축협 하나로마트 천곡점	532-4713
동해삼척태백축협 하나로마트 상장점	553-4002

한우령 한우 전문식당.....

한우령한우 전문점 강릉점	653-8892
강릉시 포남동 1289-1	
한우령한우 전문점 삼척점	573-7031
삼척시 중앙로 217 (남양동)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평생 챙겨주는 친구처럼

언제나 나를 위해주던 친구처럼
잇고 계신 보험혜택 챙겨드리려
교보생명 재무설계사가
한 분 한 분 평생 찾아뵙겠습니다



평생 드림 서비스

▶보험혜택 잇고 계신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보험혜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보험금을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급해 드립니다.
▶그 동안 달라진 법규는 언제든지 최신 정보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종 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부족하신 보험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통해 부족한 보험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평생드림서비스로 찾아 뵙 수 있도록 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1588-100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

강릉
단오제



처음부터 강릉단오제는 축제였다. 그리고 환호의 대상이었다. 강릉의 진산, 대관령의 신성함과 경외로움을 그대로 남대천으로 옮겨 놓고 벌이는 한마당 축제이기 때문이다. 요즘도 단오날이면 영동 인근지역의 많은 인파가 ‘신과의 만남’을 위해 강릉을 찾고 있다.

현재 강릉단오제는 두 축으로 이어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강릉단오제를 인류의 축제로서 그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현대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문화사적 특징을 지켜온 지역민들의 노력은 유네스코를 감동시키기 충분하였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스스로를 보다 잘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강릉단오제의 현실적 모습,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민속이며 문화의 전승 현장이라는 점이다. 강릉단오제의 이념, 정체성이 단오장에서 성립되었듯이 현재의 단오장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강릉인, 강릉사람의 정체성과 애郷심을 고양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현재 남대천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강릉단오제는 지역문화의 전승 현장이다. 전통의 계승은 지역민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의무이다. 강릉단오제가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것’이라는 주인의식과 전승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오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영신행차와 함께 열리는 ‘신통대길’ 길놀이는 강릉단오제의 정체성을 이어가려는 노력이다. 강릉의 읍면동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신통대길 길놀이는 규모와 주민들의 참여도 그리고 전통의 재창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만족시키며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의미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난장이다. 강릉단오제에서 난장은 축제의 속성, 익명성과 일탈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더욱이 난장에서는 강릉을 비롯한 전국의 무형문화재 공연이 연일 이어지고, 국내외 초청공연과 청소년, 일반단체들의 공연이 동시 다발적으로 계속된다. 남녀노소의 구분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난장은 전국의 신상품들이 모이고 또 팔고 사는 시장의 기능을 넘어 세계 인종과 문화가 교류하는 다문화의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강릉단오제 풍경

강릉단오제의 의의

음력 5월5일 단오, 수릿날은 강릉의 축제날이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에서 일어난 신바람이 남대천 단오장을 신명으로 가득 채우는 8일간의 축제이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신과 인간의 소통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상생을 위한 휴먼드라마이다.

강릉단오제는 신앙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시대에 따라 변화했던 유교, 불교, 도교, 무교 등 여러 종교들이 나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화합하는 독특한 색채를 가진 문화를 만들었다. 이 같은 특성은 우리 민속이 가진 포괄적인 문화적 포용력을 보여준다. 강릉의 남대천 단오장은 지역공동체의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성역이며, 각종 연회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정신을 배우고 계승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남대천의 단오장은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에 서있지만 미래의 모습이 공존한다



1930년대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의 역사와 전개

우리민족의 전통 민속 문화는 『三國志』에 기록된 제천의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는 제천의례가 갖고 있는 ‘하늘에 제사하고 밤새도록 음주가무 한다.’는 속성에 대한 공감 때문일 것이다. 상고시대 부여와 고구려는 겨울, 예와 동에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의례를 가졌다. 삼한은 파종이 끝난 5월, 하늘에 제사하고 음주가무로 즐겁게 지냈다.

강릉단오제 신목에 강림하는 신을 천신으로 본다면 이는 제천의례의 유풍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다른 한편으로 강릉단오제의 시원은 통일신라 말에 있었던 대관령에 대한 치제에서 찾는다. 936년 명주장군 순식은 병사들을 이끌고 고려의 통일 전쟁에 참여한다. 당시 순식이 출병하면서 대관령에 이르러 ‘이 상한 중의 사당(異僧祠)’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이는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대관령 치제로써 강릉단오제 천년역사의 시원이다.

조선 광해군 때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임영지』의 기록은 더욱 구체적이다.

왕순식이 고려 태조를 따라 남쪽을 정벌할 때, 꿈에 승속僧俗 두신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 구해 주었다. 깨어나서 싸움에 이기매 대관령에 제사하였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위 기사는 대관령의 두 신(僧俗) 덕분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과 그래서 제사하였는데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대관령의 치제가 고려의 통일 전쟁 당시 시작되어 조선 광해까지 약 7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 1천년 역사를 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근거가 된다.

강릉단오제의 위상은 허균의 『성소부부고』와 향토지인 『임영지』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허균은 1603년 강릉에서 단오제 행사를 보고 대관령에서 산신을 모셔와 제사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산신은 김유신이며, 강릉부사에 세워둔 신목이 쓰러지지 않으면 풍년이 들고 마을 평안하지만, 쓰러질 경우 흉년과 자연 재해를 입는다는 향리의 설명을 자세히 기록했다.

강릉의 향토사를 기록하고 있는 『임영지』에는 지역의 향리인 호장이 이끄는 강릉단오제를 상세히 적고 있는데 신격이 산신에서 국사로 변화였다. 다만 국사가 현재의 국사성황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단서다. 그러나 강릉단오제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해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화적 침탈을 일삼았던 일제강점기에도 단오제는 열렸다. 비록 강릉단오제의 본 무대였던 대성황사가 일제에 의해 철거되고 신사로 바뀌며 단절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압박의 눈을 피해 중앙시장이나 남대천 변, 성남동 한구석에서 소규모로나마 빼놓지 않고 단오제를 치렀다고 한다. 지역의 고노와 무녀들은 일제는 물론 해방 후 한국전쟁 중에도 강릉단오제는 맥을 이어왔다고 증언한다. 일본인 학자 아키바다카시의 강릉단오제에 대한 기록은 우리 민속사의 불행 중 다행이다.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비교적 온전히 전승되고 있거나 고증을 통하여 원형 복원이 가능할 만큼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전승되고 있었다.

이런 덕분에 강릉단오제는 1967년 중요무형문화제 13호로 등록되면서 우리민족 전통 민속축제의 원형을 간직한 단오날 축제로서 고유의 가치를 획득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유산 결작, 이제는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어 전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 되었다.



강릉 단오제의 신神



강릉은 영동지역에서 비교적 평야가 넓은 곳이지만 바다와 산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에 늘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자연재해는 대관령과 동해를 발원지로 인식함으로써 초자연적인 신에게 기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산을 무사히 넘기 위해 산신과 서낭에게 제사했고 풍년과 풍어도 빌었을 것이다. 이러한 풍속이 오랜 세월 이어지면서 수릿날 풍속과 단오의 이념 등이 융합하면서 오늘날 강릉단오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에서는 세분의 신을 모시는데 모두 대관령에서 발원한다. 대관령 능경봉에서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능선 아래 아늑한 곳에 강릉단오제 주신들이 좌정하고 있다. 주소는 평창군이지만 강릉시에서 임대하여 관리한다. 이곳에 국사성황 범일국사를 모신 성황사, 산신 김유신을 모신 산신당이 있고, 기도처인 칠성당과 샘물 용정이 모여 상호 보완하면서 신성한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산신제와 국사성황제가 올려지고 신목이 완성된다. 용정의 맑은 물을 가지고 메를 짓고 정화수를 떠서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곳이다. 신을 모시는 지역민들에게는 신이 존재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신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역이며 제의를 행하는 제장이기도하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우주의 축으로 인식되는 곳, 강릉단오제의 근본을 세우는 성역으로서 지역 공동체 신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대관령산신



대관령국사성황



대관령국사여성황

제의 대상 - 산신, 국사성황, 국사여성황

강릉단오제에서 제사는 산신과 국사성황 부부가 받는다. 산신은 신라장군 김유신이고 국사성황은 신라 말 굴산사의 범일, 국사여성황은 국사성황의 사자인 호랑이에게 업혀서 대관령으로 올라간 정씨녀이다.

대관령에 산신이 언제, 어떻게 좌정했는지는 단서를 찾을 수 없지만 산신이 신라장군 김유신이라는 것을 처음 밝힌 사람은 허균이다. 계묘년(1603)에 명주에 머물며 단오제를 보고 자신의 문집 『성소부부고』에 기록을 남겼다. 김유신은 명주에서 공부하면서 대관령 산신에게 무예를 배웠고, 선지사에서 칼을 만들어 삼국을 통일했다. 또 죽어서는 강릉의 수호신, 산신이 되었다고 했다.

국사에 대한 기록은 임영지에서 시작하지만 굴산사의 승려 범일을 대관령 국사성황으로 지목한 기록은 193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생활상태조사 강릉군』이다. 이 책의 대관령 새신부분에 “대관령에는 한 개의 성황이 있는데, 즉 범일국사로서 강릉에서 출생했다고 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국사성황의 탄생에 얽힌 설화가 전한

다. 처녀가 해가 떠 있는 샘물을 마시고 태기가 있었고 아이를 낳았다. 뒷산 학바위에 버렸으나 학이 보살폈고, 훗날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와 선승으로 이름을 떨쳤다. 죽어서는 대관령 국사성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신화는 범일의 신이한 탄생과 모험 그리고 위인이 되고, 죽어서 신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영웅담처럼 보여주고 있다.

지역민들은 국사여성황을 국사성황의 부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류교혼(異類交婚) 설화가 전한다. 국사성황이 정씨녀 부모의 꿈에 나타나 청혼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호랑이를 보내 마루에서 쉬고 있는 정씨녀를 업어와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날이 4월15일이다.

이처럼 강릉단오제의 신들은 강릉지역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지역민들은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유대와 친근감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국사성황 부부를 통해 남녀의 평등,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과 역을하게 죽은 정씨녀를 통해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신주 빚기

강릉단오제는 술을 빚는 행사로 시작한다. 술은 곧 신의 상징이다. 예로부터 술은 천상과 지상의 영혼을 연결하는 음식으로 믿었다. 제사에서 움직이는 것은 술과 향의 연기뿐이다. 음력 4월 5일 열리는 신주담기는 산신제와 국사성황제에서 제주로 사용할 술을 담는 행사이다. 결국 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날 강릉시장은 제주를 담글 쌀과 누룩 그리고 술잎을 제관, 도가에게 전달한다. 제관들은 이것을 가마에 싣고 시내를 한바퀴 돌아 칠사당 대청에서 신주를 빚는다. 이에 앞서 강릉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담을 쌀을 모으는 '신주미봉정' 행사를 마련하여 전 시민의 정성을 모은다. 이때 봉정된 쌀을 이용하여 술과 떡을 마련한다. 술과 떡은 산신제를 비롯한 강릉단오제의 공식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신목 모시기와 국사성황행차

단군신화를 보면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로 강림하고 신라 혁거세는 양산으로 이상한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탄생한다. 즉 산은 하늘로 연결되는 통로이다. 산신제와 국사성황제가 열리는 대관령 정상도 하늘과 연결 통로가 있는 곳이다.

산신제에 이어 국사성황제를 마치고 무격과 신목잡이는 신목을 찾아 나선다. 정상 부분 단풍나무에 국사성황이 강림하면 신목을 모시고 성황사로 돌아온다. 잎사귀조차 들성들성 했던 단풍나무는 인간의 소원을 담은 예단으로 치장하면서 품격이 달라진다. 혼란 속에서 만들어 낸 장쾌한 퍼포먼스, 민중의 희망을 담고 신목, 국사성황신이 탄생하는 현장이다.

구색을 갖춘 국사성황은 대관령 자락을 따라 내려와 구산에 도착한다. 국사성황이 인간계로 들어서면서 처음 맞는 구산서낭은 아들서낭이라고도 한다. 서낭당에서 토지, 여역, 성황신을 모시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구산에는 영산신 한분을 더 모신다. 이를 두고 국사성황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마도 민중들은 신을 맞이하는 마음을 아비를 맞는 자식의 마음으로 담아내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 민중에게 신은 인간과 다를 것이 크게 없다. 신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 부인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식도 생기는 것이다.

신목은 국사성황의 탄생설화가 생생하게 전하는 구정면 학산리에 들렀다가 서낭당에서 제사하고 굿을 벌인 뒤 국사여성황당으로 향한다. 국사성황이 부인을 만나 대제가 시작될 때까지 함께한다. 이를 통하여 남녀, 음양의 화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강릉단오제의 이념을 가늠할 수 있다.



영신행차

영신행차

영신행차는 음력 5월 3일 대관령 국사여성황사에서 영신제를 올리고 국사성황부부를 남대천 단오장 가설굿당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두 신은 먼저 국사여성황의 친정인 경방택에 들러 제사와 굿을 받는다. 옛날에는 강릉시민들이 구산에서 횃불을 들고 신목을 맞았고, 영산흥가를 부르면서 강릉으로 향했다고 한다.

꽃밭일레 꽃밭일레 사월 보름날 꽃밭일레
어얼싸 지화자자 영산흥
명산일레 명산일레 대관령이 명산일레
지화자자 영산흥
일년에 한번밖에 못 만나는 우리 연분
지화자자 영산흥
보고파라 가고지고 어서바빠 가자서라
지화자자 영산흥
〈후략〉

현대에 들어서는 영신행차에 참여하는 강릉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목이 가까이 오면 횃불을 밝혀 연산흥가를 부르며 신을 맞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함께 행렬을 이루며 중앙로, 옥천5거리를 거쳐 중앙시장을 돌아 남대천 가설 굿당으로 행차한다.

이날 행차는 신위와 신목을 앞세우고 관노가면극 회원, 농악회원, 지역민 등이 참여해 단오등을 들고 시내를 행진하면서 장관을 연출한다. 단오등은 단오문화관 인근에 전시되며 신목이 남대천 가설굿당에 이르면 축하 불꽃놀이가 펼쳐져 축제분위기를 달군다.

근래에는 영신행차를 확대 재창조한 신통대길 길놀이가 펼쳐진다. 여기에 참여하는 각 마을과 단체들은 나름의 공연단을 꾸며 도심 곳곳에서 길놀이를 펼치며 영신행렬과 함께 강릉단오제의 정체성 담아내고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강릉 단오제

조전제와 단오굿

영신행차의 최종 목적지인 남대천 단오장에 도착하면 신목은 가설굿당 제단으로 향한다. 제단 중앙에 신목이 좌정하면 비로소 강릉단오제 대제가 막이 오른 것이다. 다음날, 음력 5월 4일부터 7일까지 매일 아침에 올리는 유교식 제례가 조전제이다. 조전제의 헌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의 책임자로서 강릉시민을 대신하여 나라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를 올린다. 제례가 끝나면 제상의 음식을 헌관과 이날 모인 관광객들이 나누어 먹는다. 제물을 먹으면 '공부를 잘한다'는 속신이 있어 인기다. 이어서 단오굿이 진행되는 데 이는 무교식 제의로서 매일 조전제에 이어서 계속된다.





송신제와 소제

송신제는 강릉단오제 기간 중에 지내는 9번의 제사 중에 마지막 의례이다. 음력 5월 7일 늦은 오후에 가설굿당에서 열린다. 이날 제의는 강릉단오제보존회장이 초헌관으로 참석하고 강릉단오제 관련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정성스레 제사를 지낸다. 제의가 끝나면 무당이 신목을 내려 신이 제례와 굿을 잘 받으셨는지 확인한다. 이날 굿당에 참석했던 시민과 관광객은 굿당을 장식하였던 지화과 지등, 용선 등을 하나씩 들고 남대천 변으로 자리를 옮겨 신목과 함께 태우는데 이를 소제라고 한다.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굿당을 수놓았던 소품들이 불에 타는 동안 무당과 참석자들은 두 손을 모아 빌고, 또는 절을 하면서 신과 작별하는 모습은 애잔하고 사뭇 경건하다. 이것으로 강릉단오제는 공식일정을 마친다.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재

제례

상고사를 보면 부여, 고구려, 동예 등 우리 민족의 부족국가들이 날을 잡아 제천의례를 행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풍농을 감사하거나 기원하는 공동체 제의로써 집단의 공동 신에게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지내는 제의였을 것이다. 이처럼 제례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오랜 전통을 지닌 의례로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유교의 영향이 강했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 형식이 엄격하고 진중해졌지만 현대에는 범위나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강릉단오제의 제례는 전래되는 유교식 제례 양식으로 복식과 홀기, 축문을 갖추고 제관 및 집사들이 진행한다. 산신제부터 조전제, 송신제까지 9번의 제사를 지낸다. 제례의 제물은 도가에서 마련하여 제단에 진설하고 신주는 칠사당에서 빛는다.

강릉단오제의 유교식 제례는 산신제부터 송신제까지 모두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신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제례를 행할 때는 신의 정면에 예능보유자가 마주보며 자리하고 그 뒷줄에 집사들과 참석인사 그리고 무녀들이 도열하면서 시작된다. 제당을 바라보고 우측에 삼헌관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순으로 서고, 좌측에 집례가 홀기를 부르며 제를 올리는 것이다. 제의 순서를 소략하여 살펴보면

- 
- ① 참신례(參神禮) - 신을 뵈옵는 예이다.
 - ② 전폐례(奠幣禮) - 신께 폐백(幣帛)을 올리는 순서이다.
 - ③ 헌관례(獻官禮) - 신께 술과 향을 올리는 절차이다.
 - ④ 망료례(望燎禮) - 신께 바쳤던 폐백과 축문을 태우는 절차이다.
 - ⑤ 음복례(飮福禮) - 신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히 나누어 먹겠다는 절차이다.
 - ⑥ 사신례(辭神禮) - 신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신주빚기

이를 다시 절반으로 줄이면 참신례와 현관례와 망료례로 단순화 할 수 있다. 참신례는 신을 청하여 뵈고 인사를 하는 순서로서 청신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관들이 술과 향을 올려 대접하고 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올린다. 오신이다. 그리고 망료례는 신에게 바쳤던 폐백과 축문을 태워 신을 하늘로 돌려보내는 송신 절차로서 무속에서의 소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제사를 받는 신과 절차, 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래 의미는 같다.

유교식 제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축문이다. 축문의 사전적 의미는 제사 때나 마을제에서 신명에게 고하는 글이다. 즉, 축문은 인간이 신에게 어떤 바램을 빌기 위한 글이고 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에 사용된다. 축문이 도입된 것은 유교의 형식이 널리 보급된 조선시대, 유교식 제례 방식이 민중들에게 보급되면서 널리 축문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문은 지역별로 관행에 따라 제를 마치면서 보관하거나 태우는데 강릉단오제에서는 태운다.

축문에는 언제, 누가, 어떤 신에게, 무엇 때문에 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식 자체를 이해하자면 제일 먼저 축문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축문은 제의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에는 산신제의 축문부터 국사성황제, 여성황제, 영신제, 조전제, 송신제 등 모두 6가지의 축문을 사용하고 있다. 축문은 마을의 안과태평을 기원하고, 오곡이 풍요로우며 병충해와 질병이 없어 마을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도 무사하고 태평할 것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산신제와 국사성황제 축문은 ‘영동고을의 중진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구름과 비를 만들고, 악과 재앙을 물리친다.’며 ‘농사일을 도와 재앙과 환난을 방지해 달라.’고 청하고 있어 두 신이 수호신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성황제에서는 국사성황부부에게 대관령의 도로와 농사일에 대한 도움을 청하고 있으며 영신제에서도 ‘단오절이라 전례를 거행하오니 주민들을 보호하고 재앙을 없애고 복’을 청하고 있다. 조전제와 송신제 축문도 ‘재앙과 근심, 신의 감명, 물, 불, 가뭄의 재앙과 전염 질병을 막고 마을의 안과태평을 기원하고, 오곡이 풍요로우며 가축의 번성’을 기원하고 있다. 특히 조전제의 축문에 ‘외지 손님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거리거리 활력이 넘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관광지로서의 지역성을 감안한 현실적 요구가 눈에 띈다.

강릉단오제 제례의 특징은 이중성이다. 제례의식 때마다 유교식 제례를 시행하고 이어서 무교식 제례를 펼친다.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종류의 종교적 제의 방식이 충돌을 일으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강릉단오제가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시대의 변천을 폭넓게 수용해 온 탄력성의 본보기이다.

굿당과 지화

굿당의 공간은 제단과 굿마당으로 나눌 수 있다. 제단은 신이 좌정하는 공간으로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진설한다. 대관령 방향, 즉 서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으며 제단 중앙에는 신목과 국사성황부부의 위패가 있다. 좌우에는 연봉을 비롯한 지화들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굿마당은 굿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용도에 따라 악사석과 관중석을 구분할 수 있다. 제단 앞에는 무당들이 신도들의 소지를 올려주는 공간이 있고, 그 앞에서 굿을 한다. 굿을 하는 무당은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눌 수 있다. 강신무는 무업과 관계없던 사람의 몸에 신이 들어서 신병을 앓고 내림굿을 받은 뒤 무업을 하는 무당이다. 이들은 굿을 할 때 작두를 타는 등 신력을 앞세워 역동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세습무는 집안의 전통에 따라 무업을 이어가는 직업무당이다. 이들은 강신무에 비해 신력은 약해 보이지만 무업이 세습되면서 춤과 노래 사설 등 여러 부분에서 숙련되어 기예가 뛰어나고 예술적 성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강릉단오제의 단오굿을 이끄는 무당들이 세습무들이다. 무당은 굿을 진행할 때 먼저 제단을 향해 인사를 올리고 난 뒤 제단을 등지고 관중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무기를 구연하고 춤을 춘다. 그 앞쪽 중앙 부근에는 악기반주를 위한 악사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악사(화랭이, 양중이라 함)들은 악기를 앞에 놓고 굿을 하는 무당을 향해 앉아 반주와 추임새를 넣는다.

굿당은 각종 문양으로 상징화된 지화와 지등으로 장식된다. 지화는 제단의 신목을 중심으로 좌우에 장식되어 있다. 꽃이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상징은 아름다움이지만 무속에서는 생명이다. 또 번영과 풍요 그리고 존경과 기원의 매개물, 사랑, 재생, 영생불멸 등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무당들이 말하는 좋은 곳은 꽃길이며 꽃밭이다.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원리와 꽃에 의한 재생을 믿는다. 꽃에는 상상의 세계에 있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원천이다.

세존굿 무가 당금에기에는 미륵과 석가가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꽃피우기 내기를 한다. 세가지 꽃 운둔 발환화, 자진화, 목당화이다. 그 꽃으로 죽은 사람에게 대고 쓰다듬고 내리 쓰다듬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꽃에 대한 세계관을 읽을 수 있다. 굿당 입구에는 호개등이 걸려 있다. 호개등은 하늘에서 혹은 키 큰 신령들이 보고 굿당을 잘 찾아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천장에는 좌측에 탑등, 우측에는 용선이 걸려 있다. 그리고 신목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수박등 2개와 초롱등 2개 혹은 4개가 걸려 있다. 탑등은 소고등, 팔모등, 광어등, 마늘등 등이 차례차례 쌓여진 등으로 환우 때 신들이 타고 돌아갈 때 필요한 등이다.

지등은 신들의 이동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호개등은 신들이 굿당을 찾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등이며, 밤길을 오고가는 신을 위해서 길을 밝히는 초롱등이 있다. 또한 물길을 이용할 신들을 위해 용선이 준비되어 있고, 죽은 사람이 수박 덕에 이들을 더 살았다는 수박등도 신령이 가지고 갈 저승과일이다.

지등의 외부를 장식하는 문양들도 무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우선 색종이는 비단을 상징하는데 비단은 옷감이다. 신들에게 옷을 지어 입으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문양을 ‘시’ 라고 부른다. 나비사는 영혼을 상징하고 있으며 물결사는 용왕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달사는 천지신명을, 산사는 산신을 의미한다.



굿의 제차

각각의 굿은 무당뿐 아니라 춤과 노래가 다르다. 일정한 형식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격한 규칙이 존재한다. 제차에 따른 굿의 의미를 살펴보면 굿마당을 정화하는 부분, 신을 부르는 부분, 신에게 인간의 소원을 고하고 신의 대답을 듣는 부분,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는 부분, 그리고 신을 돌려보내는 부분 등 다섯 부분으로 세분된다.

청신은 부정굿, 청좌굿, 화회굿 등으로 신을 맞는 맞이굿에 해당한다. 오신을 위한 굿은 조상굿, 세존굿, 심청굿, 성주굿, 군웅장수굿, 칠성굿, 지신굿, 산신굿, 손님굿, 천왕굿, 용왕굿, 제면굿 등이다. 그리고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대맞이굿, 환우굿은 신을 보내기 위한 봉송굿이다.

이중 세존굿과 천왕굿에는 연희적인 놀이가 삽입되어 재미를 더한다. 세존굿과 중도독잡기, 천왕굿과 원님놀이는 항상 이어지는 놀이 굿이다. 굿은 몇 석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열두거리 정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장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굿 종류	설명
부정굿	부정굿은 신을 맞기 전에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는 의례이다. 강릉단오제에서는 신주근양을 시작으로 유교식 제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에 앞서 부정굿을 벌인다. 초두굿이기에 먼저 풍악이 요란하게 울리고 무녀가 신칼로 바가지의 물을 제장 주변에 뿌리고, 한지에 불을 붙여 부정을 가시는 의식을 행한다.
청좌굿(성황굿)	신을 청해 모시러 가는 굿으로 서낭대가 있어야 한다. 강릉단오제에서는 신목이 서낭대 역할을 한다. 푸너리 장단에 맞춰 서낭을 청신하는 춤을 추고 어포를 들고 오신무(娛神舞)를 하다가 다시 신칼을 들고 춤추며 신칼을 던져 점술하고 공사짓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공사짓기는 강신체험으로 서낭신과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하회굿	국가성황신과 국가여성황 등 모든 신들이 오시어 굿당에 동참하고 다툼 없이 주어진 역할을 다해달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특히 남녀 신이 서로 화해하시라는 뜻이 담겨 있다
조상굿	조상굿은 뜻 그대로 조상을 모시고 재수를 빌고 자손을 잘 보살펴달라는 축원을 담고 있는 굿이다. 어포를 들고 신을 즐겁게 하는 춤을 추며 신칼로 점술을 하기도 한다.
세존굿	삼한 시존굿, 당고마기 삼신굿으로 불리며 자손번영을 기원한다. 자식을 점지하고 자식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굿이다. 당금애기와 아들 셋이 아버지인 세존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이 과정 끝에서 세 아들과 당금애기는 신이 된다. 무가가 끝나면서 무녀는 활옷을 입고 머리에는 한지고깔을 쓰며 목에는 염주를 걸어 중의 차림새를 하고 중의 행동을 흉내 내며 춤을 춘다. 중도독잡기는 상제 역할을 할 남자를 앉혀놓고 등에 큰 자루를 하나하나 매어놓은 뒤 양중들은 마을에 도둑이 났다면 서 호들갑을 떠다. 막상 안의 물건들을 열어보니 도둑질한 물건이 아니라 마을에 복을 주는 것들이 들어난다는 내용이다. 관객들이 자루안에서 나온 물건을 복이라며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다.
성주굿	술씨를 뿌려 가꾸고 나무를 키워 베어서 집을 짓고, 세간을 돌리고 다복하게 산다는 서사를 가진 무가이다. 집을 지을 때 성주께 허락을 받고 집을 짓는다는 뜻에서 성주굿이라고 한다. 성주는 가신으로 집안의 길흉화복과 개인의 행복을 관장한다. 또 어촌에서 배의 성주는 배의 고장이나 인명피해를 없애달라고 발원한다. 무녀가 8도 목수의 일하는 모습, 톱질, 병신흉내, 소고치고 상모 돌리는 농악놀이 등을 다양하게 연희한다.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으며 갖에 성주집(한지)을 삼각형으로 겹쳐 접은것을 돌려 신체를 표시한다. 이것은 편안할 안(安)자처럼 여자가 갖을 쓰면 집안이 편안하다는 의미라고 한다.
군웅장수굿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액을 막는 신이다. 옛날에는 전쟁으로 죽은 장군들을 위로하고, 요즘은 군에 가있는 자식들을 위한 굿으로 인기도. 무녀는 활옷을 입고 전립을 쓴다. 놀이칼을 들고 빠른 춤을 추며 뿔뿔이를 쌓은 탑 모양의 신체를 입에 물고 들어 올려 장군신의 힘과 위용을 보여준다. 이때 주민들이 뿔뿔이를 만져 신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장군굿은 매년 단옷날(음력 5월 5일) 정오 무렵에 펼쳐짐으로서 무당굿의 최정점으로 보기도 한다.
심청굿	눈이 보배이다. 눈병나지 말고 봉사를 막아달라는 기원이다. 4시간 이상 걸리는 장편 서사무가로 내용은 심청전과 대동소이하다. 무녀가 갖을 쓰고 심봉사의 닢이라는 종이술이 달린 손대를 어깨에 메고 굿을 한다. 마지막에 심봉사가 점을 치고, 눈을 뜨는 장면이 연출되며 주민들이 제단 앞에 떠놓은 정화수로 눈을 씻으며 눈병을 예방코자 기원한다. 굿을 마치면서 신수점을 치기도 한다.
칠성굿	복두칠성신으로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인간사 모든 일을 통달한 신력을 가진 신으로 통한다. 무가에 따르면 칠성신은 하느님 아래 2인자로 청산천궁에서 태어났다. 무속과 도교 그리고 불교의 습합된 흔적으로 사찰에 있는 칠성당, 산신각을 예로 삼는데 산신과 칠성신을 함께 모시는 곳도 있다.

굿 종류	설명
지신굿	오방토지지신 굿이라고 하는데 어느 터전이든 탈 없이 잘되게 해달라는 굿이다. 토지지신을 즐거이 잘 받들어야 교통과 향로에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천왕굿	일명 원님굿이라고도 한다. 무가에는 우리나라를 둘러보고 명당임을 밝히고 치국잡이를 한 연후에 불교적인 천왕풀이 하고 인간의 복을 발원하는 내용으로 마친다. 이어서 천왕굿을 마치고 양중들의 연극인 도리강관원놀이를 한다. 사또의 부름을 받고 나타나는 도리강관, 이방, 도사령, 수노 등이 주인공인 관노 고덕이의 장난 때문에 사또에게 혼이 나고 춘향이를 불러 수청 드는 과정을 그리면서 지배 계층을 풍자하고 있다. 굿하는 과정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여흥으로 열리던 무극이지만 연극적인 성격이 강하다.ㄱ
지탈굿	남자 양중들이 하는 촌극으로 굿과의 연결성이나 제차와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놀이이다. 종이로 만든 탈을 쓰고 하기 때문에 지탈굿이라고 부른다. 할미, 첩, 영감의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다. 못생겼다고 할미를 소박 놓고 집을 나간 양반이 젊은 여인인 서울애기와 함께 춤춘다. 할미는 아들 싹불이 형제를 데리고 양반을 찾는다. 양반을 찾았으나 결국 서울애기와 할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양반이 죽는다. 의사, 침쟁이 등이 등장, 병을 치료하려 하지만 마지막에 무녀가 굿을 하여 살려낸다. 이 탈굿의 목적은 잡귀를 물리고 객석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다.
손님굿	마마굿이라고도 한다. 천연두, 홍역 등 병을 막기 위한 굿으로 장편 서사무가이다. 손님은 마마 등 병을 가진 신을 뜻하며 무녀는 심청굿과 같은 손대라는 종이술이 달린 막대를 들고 연희한다.
제면굿	무녀가 나온 내력을 밝히는 굿으로 양반가에 태어나 신을 받아 강신무가 되고, 죽음을 당한 뒤 복수를 위해 그 집의 딸에게 강신하는 무녀의 내력을 보여준다. 제면할미가 신자들의 집을 돌며 걸립하면서 겪는 이야기로 무녀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굿 도중에 곡식의 종자를 상징하는 제면떡을 신도들에게 나누어 준다. 제면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는 단골과 신도 간의 우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꽃노래굿	지화를 들고 춤추고 노래한다. 개인 굿에서는 죽은 망자를 위한 굿이나 무당굿에서는 신을 위한 굿으로 환송하는 의미가 있다. 주민들에게 만복과 수명장수를 주었으니 다음엔 꽃비단 속에 좌정하라는 의미가 있다.
등노래굿	굿당에 걸렸던 등을 떼 내어 춤춘다. 등노래굿은 두 번으로 나누어진다. 처음에는 초롱등을 돌이 나누어 춤추고 이어서 다른 무녀가 천장에 걸렸던 가장 큰 탑등을 들고 춤을 춘다. 탑등을 돌리고 던지는 등 빠른 춤사위가 돋보인다. 등은 곧 불이다. 불은 어둠과 밝음으로 나누어진다.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는 이별을 상징할 수도 있다. 즉, 강릉단오제가 열리면서 남대천 굿당에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으나 이제 헤어져 다시 이원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겠다.
뱃노래굿	선개용선을 타시고 탈 없이 가시라는 뜻이다. 굿당에 매달린 용선에 흰 무명천을 길게 메어 흔들고, 노 젓는 흥내를 내며 뱃노래를 부른다.
대맞이굿	가설 굿당에 모셔 두었던 대를 모셔내고 정성을 올린 뒤 그동안 잘 보셨는지 묻고 축원한다.
환우굿	무당굿에 사용되던 위패와 신간 등 상징물들을 태우는 의식이다.





관노가면극의 양반과 소매각시

관노가면극

전개

관노가면극은 관노들이 춤과 몸짓으로 한마당 펼쳤던 국내 유일의 무언가면극이다. 강릉단오제 기간 중에만 놀았고 제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학계에서는 독립적인 가면극으로 보기 보다는 곳에서 극으로 전환하는 초기 민속극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관노가면극은 출연진들이 팻대를 앞세우고 공연장에 입장하고 장자마리가 나서서 한바탕 춤사위로 마당의 부정을 씻고 터를 다듬으며 시작한다. 이어 등장하는 양반광대는 소매각시를 보자 한눈에 반하여 재물을 동원하여 구애한다. 완강하던 소매각시가 호응하자 서로 사랑하는 춤을 추며 퇴장한다. 이어서 등장한 시시딱딱이는 호쾌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서로 힘을 자랑한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이 무르익을 무렵 시시딱딱이는 이를 질투하며 횡방을 놓기로 모의하고 밀고 잡아당기고, 위협을 하여 결국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 소매각시는 시시딱딱이와 춤을 추고 이를 본 양반광대는 크게 노하며 애태운다. 장자마리까지 나서서 소매각시를 찾으려는 양반광대를 돕지만 불가항력이다. 기회를 노리던 양반광대가 시시딱딱이를 내쫓고 소매각시를 찾아오지만 질투에 사로잡혀 정절을 의심한다. 이에 소매각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외면당하자 양반의 수염에 목을 매 자살하는 시늉을 한다. 양반은 소매각시가 죽은 줄 알고 팻대로 가서 빌고, 소매각시는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아난다. 양반을 속인 것이다.

소매각시는 양반광대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서로의 오해를 풀어 죽음으로서 관용과 해학으로 이끌어 화해와 화합이라는 공동체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수염으로 목을 매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관객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양반광대의 어리숙함, 또는 양반이 속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죽음조차 희극적으로 풀고 있다.



시시딱딱이



장자마리

등장인물의 성격

관노가면극의 등장인물들은 각기 나름의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장자마리는 공연이 시작되면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로 극중 역할은 마당댕이, 공연장의 부정을 가시고 양반광대와 소매각시를 돕는 역이다.

청회색 삼배 푸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쓰고 있으며 배에는 대나무로 만든 둥근 테를 넣어서 배가 불룩하다. 포가면이나 ‘포쓴눔’으로도 불렸다. 머리에는 계화를 꽂았고 눈과 입, 코만 뚫어 놓았다. 옷에는 말치라는 해초와 곡식을 매달았다. 계화는 신비스럽고 고귀한 존재라는 상징성과 제액과 벽사 의미를 지닌다. 또한 힘을 자랑하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보여주는데 생산을 즉, 풍농·풍어를 관장하는 곡수신을 연상할 수 있다. 때문에 토지지신의 현신으로 보기도 한다.

주인공 격인 양반광대는 흰 얼굴의 미남형, 청의도포에 부채,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 등 양반의 면모이다. 하지만 하급관리인 나장이 쓰는 꿩털을 단 검은 깔대기 모양의 전건을 쓴 양반은 외적인 면에서 이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극중에서는 소매각시를 재물로 유혹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속물의 모습과 소매각시의 자살 소동에 속는 바보스런 인물로 비쳐진다. 하지만 극 전체를 이끌어 화합과 화해라는 단오제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연극적으로 비판된 타 지역 가면극의 양반탈에 비해 크게 비판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농악대가 앞세우고 다니는 농기 끝에는 꿩 털이 달려있다. 그곳에 꿩 털을 다는 이유는 깃발에 신이 강림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양반광대 가면의 머리에는 꿩 털이 달려 있다는 이유를 들어 양반광대를 국사성황신의 현신으로 보고 있다.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극을 장악하고 있는 소매각시는 하얀 얼굴에 반달형 눈썹을 가지고 있으며 연지·곤지를 하고 있다. 젊는데다가 곱고 예쁜 얼굴이다.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있으며 손수건을 가지고 있다. 소매각시가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는다는 것은 색의 상징성으로 보아 젊고 매력적인 여성임을 의미한다.

소매각시는 양반광대의 상대역이며 여자주인공이지만 양반광대를 풍자하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다. 양반광대를 따르고 시시딱딱이의 유혹에 흔들리지만 결국 자살소동이라는 지체로서 화해를 이끌어 낸다. 양반광대를 국사성황신의 현신으로 보았듯이 소매각시는 국사성황의 사자인 호랑이에게 물려간 정씨녀로 보고 있다. 소매각시는 국사여성황의 현신이라는 것이다.

관노가면극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시시딱딱이는 장자마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다른 가면극에서 볼 수 없는 명칭이다. 베로 만든 청회색 장의를 입고 있으며 소매는 넓고 베 한필로 네 겹의 띠를 맨다. 최근 공연에서는 외투형식의 검은 옷을 입었다. 노옹들은 얼굴에 오색 칠을 하고 코는 울퉁불퉁, 입은 한자 오피는 찢겼고 방상씨와 비슷하다고 고증하고 있다. 칼은 버드나무나 복숭아나무로 깎아서 별건 칠을 했다고 하였다.

극중에서는 양반과 소매각시의 사랑놀음에 끼어들어 훼방하고 양반에게서 소매각시를 빼앗으려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결국 소매각시의 자살소동을 지켜보면서 양반을 설득하고 둘의 화해를 돕는다.

시시딱딱이는 여러 문헌과 고증대로 벽사신이다. 험한 모습으로 무섭게 비쳐 홍역 등 질병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벽사신으로 여역신, 또는 창해역사로 보고 있다.

강릉 단오제의 단오 난장

신통대길 길놀이

강릉단오제의 전형은 길놀이 성격이 강했다. 옛 기록을 보면 신목을 강릉부사에 모셔두고 팻대(화개)를 만들어 마을의 서낭당과 관청을 돌며 관노가면극과 굿을 펼치는 길놀이로 단오를 지냈다. 5월 1일부터는 날마다 관노가면극이 공연되고 굿도 열렸다. 이날 부사청에서는 팻대를 만든다. 팻대는 차바퀴처럼 둥글게 하고 그 복판에 십자형 나무를 대고 교차점에 목간을 세운다. 마치 수레바퀴를 달아 세운 것 같이 된다. 나무에는 오색천을 늘어뜨리는데 무거운 것은 40~50관이 넘었다고 하니 힘센 사람이 아니면 감히 들을 생각조차 못 했다고 한다.

5월 5일 대제에는 대성황사 앞에서 가면극을 연희하고 신목과 팻대를 받들고 약국서낭에 가는 도중에 시중에서 힘깨나 쓰는 젊은이가 모여 다투어 팻대를 모시고자 하였고 무격이 노래를 부르며 웅립하였다고 한다. 장정들은 팻대를 받아들고 얼마나 갈 수 있나 내기를 하였는데 ‘이것을 잘 세우는 사람’은 오직 ‘신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행렬이 약국서낭과 소서낭을 지날 때는 기도를 올리고 관노가면극을 하였다. 이어서 성내의 시장, 전세청, 대동청, 사창의 여러 곳에서 성대히 굿을 하고 저녁에 대성황당 안에 봉안하였다. 행렬이 선두에는 태평소를 부는 나팔수가 앞서서 길을 정화하고 다음에 무격, 팻대를 메고 호장이 뒤를 따랐다고 한다.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길놀이가 주된 행사였으나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대성황사를 비롯한 약국서낭 소서낭당이 멸실되고 전통민속 문화가 쇠락하면서 함께 사라졌다. 더욱이 강릉단오제를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할 당시는 길놀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사라져 영신행차로 명맥을 이어왔다.

신통대길 길놀이는 강릉단오제의 길놀이 전통을 바탕으로 재창조된 콘텐츠이다. 놀이, 볼거리를 비롯하여 강릉의 구석구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길러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다. 강릉단오제의 전통과 정체성에 기댄 신개념의 길놀이이며 시민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상호 교류의 장, 화합과 조화라는 강릉단오제의 이념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통대길 길놀이는 2011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해도 28개 팀 2천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참가자들은 ‘꼭 보여주고 싶은 단오의 모습, 또는 강릉의 모습’을 주제로 2.3km를 이동하면서 신명나는 길놀이를 연출했다.



신통대길 길놀이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공연단들이 놀이를 통해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하였고 일상이나 역사적 내용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놀이의 흥겨움은 보는 현장에서 공연하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길놀이의 바탕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남녀노소 모두 자기 역할을 즐겁게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명이라는 공식을 증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오제가 끝난 뒤에도 마을 공동체가 단단해지는데 한 몫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지난해 심사위원들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종일관 공연자 스스로 즐기는 모습으로 행사의 의미를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작년보다 참가팀이 늘었을 뿐 아니라 구경꾼도 훨씬 많아졌다. 대부분의 팀들이 마을이나 강릉의 특징을 부각시켜 재미있는 놀이판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신통대길 길놀이는 결국 강릉단오제의 재창조라는 시대적 소명과 연계된다. 전형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 전통문화는 현대문명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강릉단오제는 전통 민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과거 지향적이나 보수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신통대길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단오 세시

음력 5월 5일은 단오, 명절이다. 수릿날 아침, 공들여 마련한 단오빔을 차려입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했다. 쪽으로 인형을 만들어 대문에 걸어 놓고, 말려 놓은 취나물을 뽕잎에 섞어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었다. 창포를 잘라 차를 달이고, 술에 담가 마셨다. 새색시는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하얀 속살 드러나는 창포 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았다.

강릉단오장에는 단오세시를 만끽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다. 단오제 기간 중 계속 운영되는 체험관에는 수리취떡 만들기, 단오부적 받기, 창포머리감기, 창포비녀만들기, 단오부채그리기 등 단오와 관련된 세시풍속을 즐길 수 있도록 재료와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강릉단오제와 지역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관노탈 그리기, 방짜 열쇠고리/수저 만들기, 단오신주 맛보기 등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씨름과 그네뛰기는 단오놀이의 상징이다. 씨름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사내들의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이었다. 고구려 고분에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만큼 우리민족이 즐기는 경기였다. 강릉단오제에서는 씨름대회가 열리는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경기를 치른다. 단체전은 주로 강릉시민이 팀을 꾸며 단체전에 참여하고, 개인전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단체전 우승자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를 포상한다.

그네는 단오 때 여성의 놀이로 남성의 씨름과 더불어 단오를 즐기는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놀이이다. 바깥 구경을 못하던 젊은 여인네들이 단오날 하루만은 밖에 나와 해방감을 누리던 놀이이다.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그네 터에서 만나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단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강릉단오제에서는 그네대회가 열리는데 그네 밑에 줄자를 매어놓고 줄이 정지지점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측정하여 우열을 가린다.

강릉의 무형문화재

강릉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11-라 호이다. 한해 농사 과정을 모의하는 농사풀이가 가장 큰 특징이다. 소를 몰며 논을 갈고, 모 심고 그리고 김매고 벼를 베어내는 추수와 타작, 방아찌기까지 전 과정을 춤으로 재현한다. 잡이들은 쟁과리, 북, 장고, 징 등의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소고잡이, 법고잡이, 무동 등 무용수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벌인다. 여기에 동고리는 절정이다. 사람의 어깨위에 사람이 올라가 사다리를 만들고 무동이 맨 꼭대기기에 올라가서 상모를 돌리는 3동거리와 5동거리는 보는 이들의 감탄사를 자아낸다.

논매는 소리인 오독떼기는 한 소절을 노래하는데 1분 가까이 걸리는 긴 호흡을 가진 노래이며 고음에서 다섯 번을 꺾어 넘겨 애처로움과 강렬함을 가지고 있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마을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된 농업 노동요로서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벼 베는 소리, 벼 터는 소리, 벼등짐 소리 등 농사와 관련된 다양한 곡조가 전승되고 있다. 세조는 동해안을 둘러보다 오독떼기를 잘 부르는 사람을 뽑아 노래를 시키고 상을 주었다고 전한다.

더욱이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면서 강릉농악의 〈논매는 소리〉와 오독떼기의 〈모심는 소리〉에 속해있는 ‘자진아리리’가 주목받고 있다.

용물달기는 마을의 우물이 마르지 않고 가뭄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민속놀이이다. 정월 대보름 전날 저녁 짚으로 수신(水神)인 용을 만들어 마을의 동서남북 네 곳의 우물에 용을 잠시 담갔다가 자정 무렵에 꺼낸 다음 임경당(臨鏡堂) 우물로 옮기며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달과 물은 재생과 생산의 상징이므로 용물달기는 농경문화의 신앙대상이었던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천하평답교놀이는 2001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걸작이다. 음력 2월 6일 쯤상날, 마을 주민들은 즐기던 답교놀이를 연출한 것으로 마을회관에서 1km 정도 떨어진 사천진리 다리까지 농악대 가락에 맞춰 온 주민이 함께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이어 다리에서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다리뺏기와 답교놀이를 즐기는 놀이 마당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라호 강릉농악



강원도무형문화재 제5호 강릉학산오독떼기



용물달기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0호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난 장

강릉단오제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것이 있다면, 난장이다. 이 난장은 단순한 난장판이 아니라 제의를 가지고 선 난장이기 때문에 아수라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강릉단오제 기간 중에 난장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평소 흥이 될 것조차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한다.

오늘날 강릉단오제의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 중에 난장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강릉단오제가 연인원 100만명을 헤아리는 대규모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중에 난장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다. 비록 난장의 규모를 놓고 장단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난장의 기능은 빼놓을 수 없는 강릉단오제의 성공 조건이다.

강릉단오제의 대규모 난장에는 놀거리와 살거리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가 넘친다. 공연장과 상점 사이의 거리는 사람에게 밀려다닐 만큼 인파로 가득하고, 상가와 공연장 역시 빈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북적거린다.

공연장에는 씨름과 그네, 투호 등 민속놀이를 비롯한 각종 놀이가 펼쳐지고 상점이 몰린 곳에는 뽑기, 고리던지기, 동전던지기 등 오락성 놀이가 지나가는 관객을 유혹하고 있다. 동전 몇 닢으로 마개가 달린 장충을 빌려서 인형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는 취기 어린 모습은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인파로 붐비는 한쪽 널찍한 곳에는 요란한 전자음악과 함께 풍악이 끊이지 않는다. 희극적 분장으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을 모아 놓고 갖은 기예를 선보이고 엿을 파는 품바의 공연도 난장이기에 볼 수 있는 멋스러움이다.

강릉단오제 난장은 쇼핑욕구와 새로운 맛을 즐기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난장에서는 물건이 엄청 싸다. 질적인 문제는 차제하고 가격은 시중가격과 비교가 안된다. 더욱이 파장이 가까이 오면 가격은 더욱 곤두박질친다. 어려웠던 시절에 단오장은 서민들이 신상품을 보고 생필품을 조달하는 최적지이었을 것이다. 의류는 물론 신발과 잡화류 그리고 천연 약재까지 등장한다. 특히 강릉은 관광지다 보니 침구류에 대한 수요가 대단하다. 단오장이 서면 침구류만 파는 난장이 형성될 정도이다. 이곳의 침구류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 영동지역의 숙박업소 주인들이 쇼핑을 나서는 단골 시장이다. 최근에는 다문화의 바람을 타고 세계 각국의 희귀한 물건들이 경연을 벌이듯 줄지어 손님을 기다린다.

난장에는 전국의 맛있는 요리가 총집합한다. 덕분에 단오제 기간 중에 강릉의 계모임, 회식, 동문회 등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난장을 찾는다. 오직하면 부모님께서는 단오 용돈을 드리고 지갑이 훌쩍한 직장인은 단오가불, 인심 좋은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단오보너스를 지급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고 한다. 서울이나 객지로 나갔던 친구들도 단오 때면 고향을 찾아온다.

그래서 단오장은 만남의 장소이며 그동안 싸였던 회포를 풀어내는 해방공간이다. 무질서와 질서가 공존하고, 혼돈과 혼란을 풀어내고 내일을 위해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를 털어내는 해방공간이 난장인 것이다. 단오기간 중에 한번이라도 단오장 난장을 찾지 않는다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 뭔가 잃어버린 느낌을 갖는다. 이런 의식을 학자들은 집단무의식으로 해석한다.

난장에서는 수많은 공연물이 시간을 기다리며 연이어 펼쳐진다. 전통놀이에서 현대문화까지, 그리고 국내외 공연단이 강릉단오장을 찾는다. 때문에 단오장은 공연물을 관람하기 위해 몰려드는 인파로 가득하다. 공연을 보다가 시간되면 음식점을 찾고 다시 공연을 보러 오가는 길에 쇼핑도 하면서 단오를 즐기는 것이다.

난장에서의 공연이라고 쉽게 보면 안 된다. 여기에는 강원도와 강릉시가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농악이나 줄타기 등과 같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외국의 공연단도 매년 몇 개국씩 강릉단오장을 찾는다.

이밖에도 단오장은 문화의 전승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관계기관들은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창조한 콘텐츠를 공모하여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시민들로 구성된 일반단체 공연단과 대관령눈꽃축제, 정선아리랑제, 제주탐라문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강릉단오제와 상호 교류하는 자매도시와 자매단체 등의 공연단도 단오장을 찾아 무대를 장식한다.

강릉단오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단오맞이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가요제 및 대학 동아리 연합 공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



강릉 단오제 지킴이



강릉단오제의 전반에 대한 실질적 운영 주체기관으로 종합 계획수립과 집행 그리고 단오제 관련 문화재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단오제 관련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장과 상임이사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집행부에는 기획, 공연, 경영 팀이 있다. 1973년 강릉문화원에 구성된 단오제 행사팀을 전신으로 2006년 강릉문화원에서 분리, 독립하였고 2007년 사단법인화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강릉문화원에서 보존회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7년 사단법인 강릉단오제보존회로 독립 출범하였다.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인 제례, 굿, 관노가면극의 전승과 보존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주담기를 시작으로 산신제 등 지정문화재 행사를 담당 진행하고 있다. 지정문화재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연 창작과 기획을 비롯한 국내외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문화의 연구 및 사료 수집, 보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단오문화관

강릉단오제의 전승활동과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강릉단오제를 상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건립되었다. 상설전시장과 전통문화교육실, 세미나실,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공연을 통해 시민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단오제보존회 사무실이 있고 건물의 관리와 운영은 강릉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예능보유자



관노가면극부문

김종균

1942년 ~ 현재

2000년 7월 22일
예능보유자인정

무속부문

빈순애

1959년 ~ 현재

2000년 7월 22일
예능보유자인정

제례부문

조규돈

1947년 ~ 현재

2000년 7월 22일
예능보유자인정



[나눔]

나눔과 나눔이 있을때
세상이 행복해 집니다



- 교육장학사업** 하이원해피스쿨, 하이원원정대, 하이원장학사업, 하이원복스타트, 하이원 기타교육지원
- 지역재활력사업** 하이원 베이커리 사회적기업, 하이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아카데미
- 나눔문화사업** 하이원 장애인스키학교, 하이원 팝스콘서트, 하이원 매칭그랜트, 나라사랑보금자리,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특별지원
- 지역복지사업**
(강원랜드복지재단) 진폐지원사업, 이동복지사업, 생활안정지원사업, 복지역량강화사업, 후원결연사

행복한 세상! 하이원리조트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날만큼 하이원